

《가시선인장》
소설이 역사를 기록하는 가장 진실한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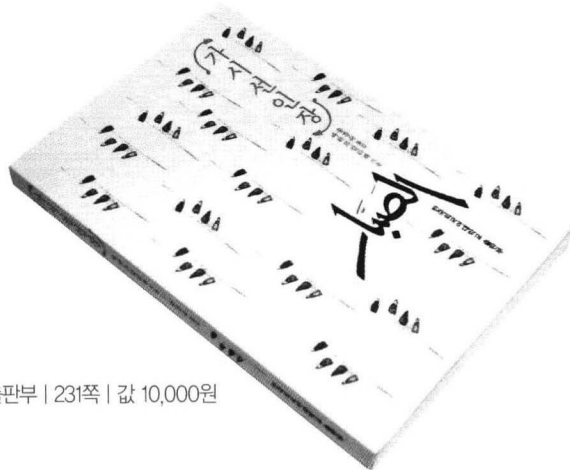
어린 시절, 친구들과 종종 땅따먹기 놀이를 했다. 엄지와 검지의 끝을 이용해 튕겨 내는 돌맹이가 안착하는 지점이 내 영역이 되는 것이다. 이 놀이의 묘미는 방금 전까지 친구의 소유였던 영역을 요령 있게 먹어 들어갈 때의 희열과 방금 전까지 내 소유였던 영역이 요령부득으로 먹혀 들어갈 때의 안타까움이 시시각각으로 교차한다는 것이다. 땅따먹기 놀이 끝에는 가끔 싸움도 일어났는데 시비의 발단은 선과 선의 경계에 착지한 돌맹이를 어떤 식으로 인정, 혹은 불인정 하느냐에 관한 것이었다. 이런 경우 대체로 격렬한 반응을 보이는 아이는 가장 많이 땅을 차지한 아이와 가장 많이 땅을 빼앗긴 아이였다. 어린 시절이었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소유했던 것에 대한 '집착' 과 박탈당한 것에 대한 '증오' 는 그 강렬함에 있어서 성인의 그것 못지않았다.

어른이 되어서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다. 한정된 자원과 토지라는 조건은 인간을 '경쟁' 하게 한다. 유명한 영어 강사의 새벽반은 대학생부터 직장인까지 자리 잡기부터 이미 피가 튕다. 어린 시절의 땅따먹기로 다져진 그 승부근성(?)으로 우리는 열심히 '내 것' 을 넓히기 위해 노력한다. 만에 하나 이렇게 쌓아올린 내 것을 실수로 빼앗긴다면 그야말로 '환장' 할 노릇이다. 남의 것을 슬쩍 가로채는 것에 대단한 '가책' 을 느끼는 양심 따위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말이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원래 없었던 것보다 한 번 가졌던 것을 빼앗기는 것이 더욱 잔인한 노릇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것은 원래 치열한 '경쟁' 으로 획득한 내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 개인이 아닌 민족의 차원으로 넘어가면 '경쟁' 은 '분쟁' 이 되고 그 '분쟁' 은 결국 '전쟁' 을 불러온다. 다른 어떤 허울 좋은 말을 갖다 붙여도 결국 전쟁은 더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과 박탈당한 것에 대한 증오로 귀결된다.

싸하르 칼리파의 《가시선인장》은 팔레스타인의 몰락한 지주 알카르미 가(家)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1976년에 발표된 작품으로, 팔레스타인의 대표적 여성작가인 싸하르 칼리파의 출세작이면서 후기작에 비해 페미니즘적 성향이 비교적 약한 초기작이다. 그녀의 다른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점령지를 살아가는 팔레스타인 민족의 현실을 그리고 있는 이 소설은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작품은 아니다.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렇지만 외면할 수 없는,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억울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이다.

1967년, 6일 전쟁에서 팔레스타인은 패망했다. 이미 '48년의 재앙' 으로 불리는 1948년의 중동전으로 붕괴되었던 팔레스타인은 이로 인해 대부분의 땅을 이스라엘에 점령당했다. 요르단 강 서안의 나불루스 시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다시' 찾은 땅이고, 팔레스타인의 입장에서는 '빼앗긴' 땅이다. 점령지 안에서의 두 민족, 서로 같은 영역에 존재하면서 다른 한쪽이 명백한 우위를 점하고 있을 때의 증오와 분노는 우



《가시선인장》 싸하르 칼리파 지음 | 송경숙 옮김 |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 231쪽 | 값 10,000원

리도 매우 잘 아는 것이다.

게다가 '생활'을 위해, 같은 민족에게 '변절자' 취급을 받으면서 점령자에게 무릎을 굽히고 들어가는 자의 심정은... 먹고 사는 문제가 절실할수록 삶의 의지는 강해지고, 증오와 분노는 깊어진다. 우정은 깨어지고 사랑은 어긋난다. 한 아들은 저항 투사가 되고, 다른 아들은 남은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노동자가 된다. 최초의 그리고 최후의 비극은 이런 난장판의 상황에서도 '사람들은 사고 먹고 웃는다'는 것.

소설은 시종 철저히 '빼앗긴' 자의 입장에서 진행된다. 그렇다고 팔레스타인이 먼저냐, 이스라엘이 먼저냐 하는 식의 '과거'에 집착하는 것은 아니다. 이 작품에서 종교는 면면을 흐르는 거대한 밑그림이 되지만 결코 드러나지는 않는다. 작가는 오로지 '오늘'을 보여줌으로써 팔레스타인의 '내일'을 묻는 방식을 취한다.

이스라엘에 저항하거나 협력하는 두 가지 양태는 서로 사촌지간인 우싸마와 아딜을 통해 형상화된다. 이스라엘 공장으로 일하러 나가는 팔레스타인 노동자들. 민족주의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점령자'를 위해 일하는 자존심도 없는 인간들이다. 그들이 탄 버스를 폭파시켜야 하는 임무를 지닌 우싸마는 그 버스에 사촌인 아딜이 타고 있다는 사실에 괴로운 고민에 빠진다. 7명의 식구에, 서방의 기자들과 인터뷰하기만을 즐기는 아버지의 인공지능장투석기까지 책임져야 하는 아딜은 일을 그만두라는 우싸마의 설득에 이렇게 말한다.

“쿠웨이트로, 알다흐란으로, 걸프 국가로 이주한 팔레스타인 사람들 말이야? 그 작자들한테 요르단 강 서안 지구와 가자 지구의 산업화에 기여 좀 하라고 하시지, 그러면 이스라엘에 가서 하는 일을 당장에라도 그만 둘 테니까 말이야.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리가 없지만. 왜 그런지 알어? 그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구도 자기 돈을 걸고 모험을 하지는 않을 테니까. 그 사람들은 위험과 희생을 전부 점령지 안에 있는 우리들만 부담하기를 바라고 있다고”(103쪽).

내 땅을 점령당하고, 그 땅의 한 가운데서 유배당하는 자의

분노와 증오가 '인티파다'의 현실 안에서도 생활인으로 살 수 밖에 없는 자의 절망과 무력감보다 더 크다고 할 수는 없다. “굶주림은 혁명을 촉발한다”는 우싸마의 말이 공허하게 느껴지는 것은 아딜의 생활에 대한 밀도 깊은 묘사 때문이다.

그러나 작가가 아딜의 삶을 긍정하는 것은 아니다. 소설의 마지막, 대화와 타협으로 식민 현실을 살아왔던 아딜이 이스라엘 군인이 폭파시키는 자신의 집을 보며 '복수'를 맹세하는 장면은 '빼앗긴' 땅에서 과연 '증오'하지 않는 삶을 수 있는가에 대한 작가의 통렬한 질문이다. 비록 “죽을 때까지 투쟁하라”는 식의 메마른 구호를 외치고 있지 않지만 작가의 그 외침은 작품 전체를 통해 살아있다.

내 땅을 빼앗은 자는 누구인가, 왜 우리는 이 땅에서 울어야 하는가, 빼앗긴 땅에서의 정의와 도덕은 과연 실현 가능한가, 우리는 무엇을 해결할 수 있는가. 이 작품이 발표된 지 30년이 넘었지만 계속되고 있는, 계속될 수밖에 없는 질문들이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분쟁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종교와 정치가 복잡하게 연결되어 타협도 양보도 쉽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러나 산발적인 테러와 보복 공격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은 협상 테이블에 앉는 이들이 아니다. 개인의 땅따먹기 따위와 비교할 수 없는 국가와 민족의 문제가 왜 이런 땅따먹기 식의 현실로 귀결되고 마는지. 그 안에서 '생활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개개인에게는 누구에게라도 대답을 듣고 싶다. 그래야 이 '잔인한 놀이'가 언젠가는 끝날 것이라는 희망이라도 품을 수 있을 테니까.

무엇을 멈추어야 하고, 무엇을 시작해야 하는지 민족의 이 데올로기 이전에 사람의 논리로서 너무 명백하다. 그 명백한 일이 아직 한 자리에만 맴도는 것은 '생활인'이 아닌 '정치인'들이 이 잔인한 놀이에 너무 깊이 빠져버렸기 때문은 아닌지. 소설이 역사를 기록하는 가장 진실한 방식을 통해 작가는 묻고 있다. **한글**

이주연 기자